

'당명만 빼고 쇠신' 내세운 송영길, 3수 끝에 與 사령탑 올라

연대 총학생회장 출신 노동운동가·인권변호사
DJ 영입으로 정계 입문...인천 계양 5선 의원
초선 때부터 소신 행보...당권 도전 두번 고배
文 총괄선대본부장 역임 범친문...계파색 열어

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86그룹의 만능적인 중진 의원이면서도 주류와 거리를 뒤은 소신과 정치인이다. 이번 전 당대회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당대표에 올랐다.
전남 고흥 출신인 송 대표는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졸업 후 건설현장 배관용접공, 택시기사 등으로 7년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. 나이 서른에 사법고시에 도전해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.
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. 그해 6·2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·강화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.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분리되면서 새천년민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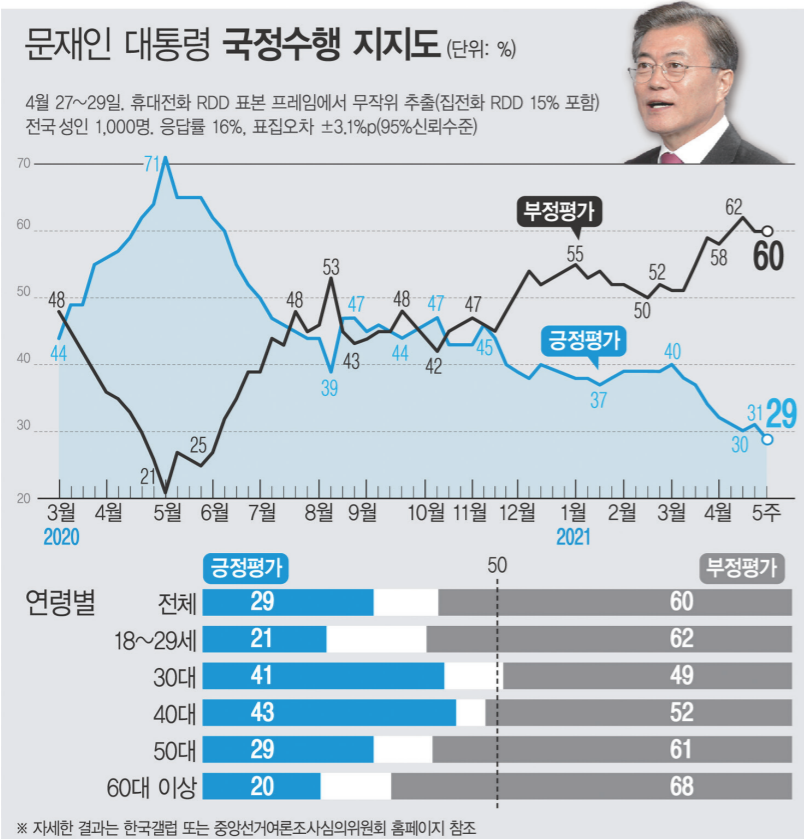
▲1963년 전남 고흥 출생 ▲광주대동고등학교 ▲연세대학교 경영학과 ▲연세대 총학생회장 ▲제36회 사법시험 합격 ▲16·17·18대 국회의원 ▲열린우리당 사무총장 ▲민주당 최고위원 ▲인천시장 ▲20·21대 국회의원 ▲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▲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▲국회 외교통일위원장

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 지역에 재도전해 국회에 입성했다.
당시 초선 그룹 '새벽21' 멤버로 정풍운동에 가세했던 송 대표는 2003년 개혁세력으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섰다. 대북송금 특검 반대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찬성으로 소신파로 각인됐지만 당내 비판도 많이 받았다.
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때 손학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. 18대 총선에서 86그룹이 대거 낙선하는 가운데 3선에 성공했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.
인천시장 시절 재정난 해소에 힘 쏟고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



리로 유지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. 중국 청화대 연구교수를 거쳐 20대 총선에서 기존 지역에 복귀했다.
앞서 두 번의 당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. 2016년 8·27 전당대회 때는 선전할 거라는 예상을 빚고 컷오프에서 탈락했고, 이회찬 전 대표가 당선된 2018년 8·25 전당대회 때는 2위를 기록했다.
2017년 문재인 캠프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뒤 '범친문'으로 분류됐지만 계파색이 열리는 평가를 받는다.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

30% 선 무너진 文대통령...청년·정상외교·백신으로 반등 모색



4·7재보궐선거 이후 20대 지지율 지속 하락세
취임 4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0%선이 붕괴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, 청와대가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.
한국갤럽 4월 5주차(27~29일)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9%로 나타났다. 이는 지난 주보다 2%포인트 하락한 것으로, 갤럽 조사 중 최저치다.(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)
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 주 조사와 같은 60%였고,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(어느 쪽도 아닌 4%, 모름·응답거절 7%).
연령별 긍·부정률은 ▲18~29세(이하 20대) 21%·62% ▲30대 41%·49% ▲40대 43%·52% ▲50대 29%·61% ▲60대 이상 20%·68%로

수석을 단장으로는 '청년 TF' 가동을 시작했다.
기존 청년비서관실에서 하던 업무가 있음에도 별도의 TF까지 구성한 것은, 취업·주거·복지 등 청년 정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일찌저지는 대목이다.
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영국 G7(주요 7개국)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국면을 맞은 것도 호재다.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한국을 아시아 코로나 백신 허브국 입지로 올려놓는 등 성과물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.
특히 청와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. 정부는 최근 화이자 백신 2000만명 분 추가 구매를 바탕으로, 상반기 1200만명 백신접종 목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.
여기에 문 대통령도 최근 노바백스 최고경영자(CEO)를 만나는 등 안전한 청년 정책에 내실을 기울이고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이철희 정부

호남신문 광고안내

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.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. 믿고 맡겨 주십시오.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.

기사제보 (062) 222-2580	광고문의 (062) 228-258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축하·근조화환 전문점

전국 꽃배달 서비스

60,000

농장직영 광주꽃도매

☎ 직통전화 010-2400-7774
☎ 주문팩스 062-946-0053